

재래시장 화재안전관리 실태 및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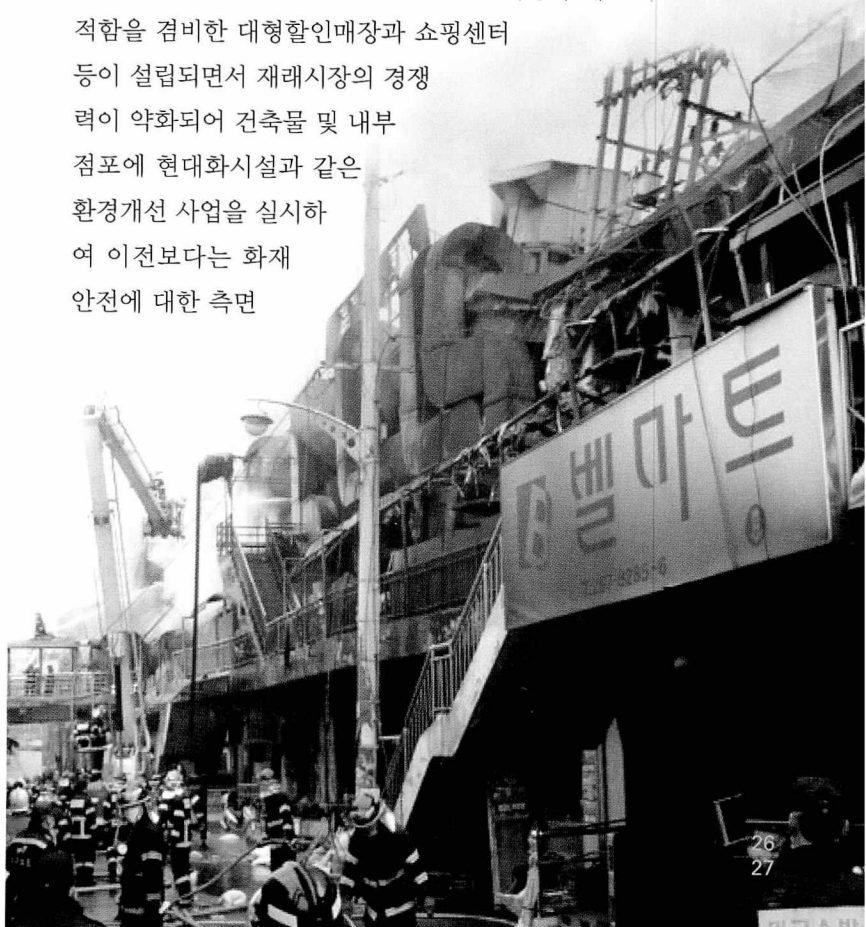
글 | 황태연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화재조사팀

1. 머리말

시커먼 연기가 분출하고 불길이 이글거리는 화마(火魔)가 서민들의 땀이 스며든 재래시장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검게 그을린 소방관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물을 방수하고 있고 상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경찰들과 대치한 상황에서 시장으로 뛰어들려 하고 있다. 이곳은 얼마 전에 온 국민을 안타깝게 만든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이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8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상인들이 일구었던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재래시장은 50~60년대 이래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래시장은 대부분 30년이 넘는 목조 건물로서 좁은 공간에 대한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해 여유 공간이 전혀 없이 유독성 물질인 고무와 화학 합성섬유제품 등이 산재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순식간에 확대되어 소화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장상인들의 안전의식 등의 결여로 화재에 대해 인식이 없으며, 대부분이 영세상인들로 화재안전에 대한 투자가 없어 화재 발생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 구매의 편리성과 쾌적함을 겸비한 대형할인매장과 쇼핑센터 등이 설립되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건축물 및 내부 점포에 현대화시설과 같은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이전보다는 화재 안전에 대한 측면





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00년~'04년)동안 재래시장에서 발생된 화재는 연평균 46건, 인명피해 4.6명, 재산피해 5억 7,800만원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에 화재 발생시 대형화되는 추세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재래시장 화재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

가. 화재 예방의 취약성

재래시장은 다수의 영세상인들이 시장 내에서 식생활을 자체해결하기 위해 전기 및 가스제품과 같은 화기를 화재안전에 소홀한 채 아무런 제재없이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불에 약한 옷이 산적되거나 먼지들이 많아 착화되기가 용이한 상태이다. 또한 선풍기, 에어컨, 전기장판, 전기·가스난로와 같은 난방제품을 기존 전기설비의 교체 없이 마구잡이로 증설·사용하여 전기 과부하 같은 요인 등에 의해 화재 예방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나. 연소 확대 용이성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재래시장 구조는 대부분이 30년이 넘는 노후 목조건물, 비닐천막, 경량 샌드위치 스티로폼 패널구조로 이루어져, 순식간에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 화재피해가 높다. 점포 내부 상품 역시 고무제품, 합성섬유제품, 플라스틱 등이 대부분이어서, 화재 발생시 높은 열량을 방출하여 인접 가연물에 쉽게 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점포 간에 방화구획이 마련되지 않고 커튼과 같은 가연성 물질로 구획되어 화재가 대형화될 수 있는 실정이다.

다. 적정 소방시설의 부재

재래시장은 '50~'60년대 생성되면서 당시의 소방관계법을 적용받아,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재래시장은 화재하중과 열발생율이 높은 물건들이 산적되어 있어, 그와 같은 시설로는 화재를 진압하기에 적정하지 않다. 또한 산적된 물품들이 내부에서 연소가 이루어질 경우 소화약제가 도달하지 못한다.

라. 소화활동의 곤란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협소한 소방도로에 무질서한 노점상과 주·정차 차량이 점유하고 있으며, 건물 주위에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로구조의 시장 내부에서 정확한 화점위치를 찾기가 곤란하여 소화활동에 장애가 수반된다. 또한 내부 점포가 철재서터로 이루어져 있어, 소화 작업시 소화용수 침투가 곤란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따르며, 연소가스의 유독성으로 소방대 진압활동이 곤란한 실정이다.

마. 화재 안전점검의 부재

시장 내 점포 소유자가 다수인으로, 건물 관리소홀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경기불황으로 화재안전과 같은 부분에 투자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노령의 경비원 1~2명이 자체 방화순찰 등을 실시하지만 정확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개선대책

가. 재래시장 환경개선

재래시장은 영세한 상인들로 구성되어 현대식 건물로 재개발하는데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후 건물을 없애고 화재에 대한 취약부분을 개선하여, 일정 간격으로 방화구획을 유지해 화재가 발생될 때, 그 부분으로 한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에서 화기를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영업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사용된 화기 관련 전원을 차단하도록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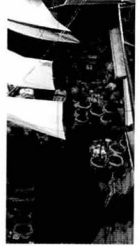
나. 소방시설 강화

현재 소방관계법의 획일화된 적용으로 적정 소방시설에는 한계가 따르고 사유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일정 소방시설이 오히려

러 화재에 대한 피해를 경감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맞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재래시장은 화재가 발생되면 순식간에 규모가 확대되므로 초기소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 화재 안전점검 강화

재래시장은 화재에 대해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이웃 점포로 연소가 확대되어 피해가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물론 경제 불황에 따른 영세 상인들이 화재안전점검과 같은 부분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안전점검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스스로가 화재에 관련된 위험성을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전기·가스안전공사와 소방기관 등 화재안전점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사전에 화재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4.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래시장은 노후건물 등 화재취약요인 등으로 인해 항상 대형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상인들 자체가 개별 분양되고 영세해서, 화재보다는 생활에 더욱 치중하게 되어 화재안전에 대해 감각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이익에 눈에 어두워 화재예방 투자를 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본인이나 타인에 의한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생각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우리 속담을 되새겨 볼 일이다. ☹

참고문헌

1.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 2004
2. 현성호 외, 「화재원론」, (동화기술), 2001
3.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소방전술」(반기획), 2001